

결합형 등잔대 - 등경겸용촛대 / 유병겸용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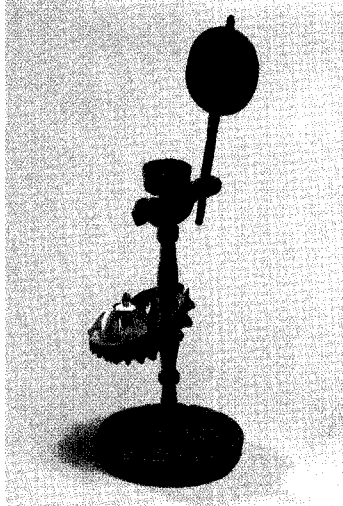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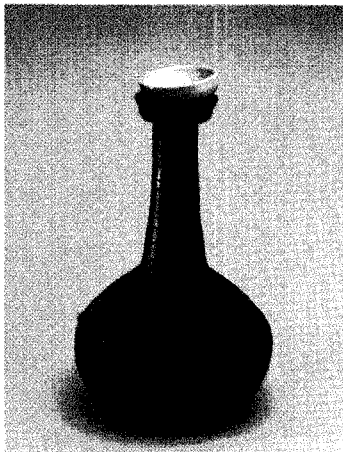


사진 2

앞글에서 등경이든 등가든 하나의 등잔대에 하나의 등잔을 얹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등잔대에 등경과 등가, 등경과 촛대, 등가와 기름병, 그리고 등경, 등가, 촛대의 세 가지 기능까지 갖춘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일종의 결합형 등잔대로서 두세 가지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좀더 실용적이다. 외관상의 미적 형태뿐만 아니라 조도(照度), 보관과 조명 수단에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실용성을 추구하는 옛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사진1〉은 등경겸용촛대이다. 기둥(竿柱)에 전복껍질로 등잔걸이를 만들어 등잔을 얹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등잔대의 기둥 윗부분에 조각한 새를 얹히고, 새 등에 초를 꽂아 쓸 수 있는 초받침을, 꼬리부분에는 불후리를 달아 맵시를 주었다. 불후리는 촛대에 딸린 제구로서 불부채, 즉 화선(火扇)이라고도 한다. 보통은 둥글고 얇은 쇠조각으로 초꽃이 옆에 꽂아서 이리저리 돌리며 촛불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불꽃이 바람에 꺼지거나 펄렁거리는 것을 막는다. 여기서는 반사판이나 바람막이와 같은 기능적 역할보다는 소박하지만 장식적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바탕에 꽃무늬를 새겨 넣어 소고(小鼓)처럼 보이기도 하고 손거울 같기도 하다. 기둥 위에 얹은 새의 모양은 삼국시대 가야나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오리형 토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등잔걸이로 이용된 전복껍질을 주목해보자. 바닷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아이디어도 참신하지만, 무엇보다 사용 지역의 생태적 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 등잔대는 제주도 지역에서 수집되었으며, 현재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2〉는 유병(油瓶)겸용등가이다. 받침대 위에 등잔을 얹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등가(燈架)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기름병(油瓶)을 등가로 활용하여 이중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적갈색의 도기(陶器) 몸체에 여러 줄로 죽절문(竹節紋)의 양각(陽刻) 띠를 돌렸으며, 위쪽 아가리부분이 밖으로 살짝 벌어져 있다. 기름을 넣는 주구(注口)로 사용되기 쉽도록 한 것이며, 여기에 등잔을 얹어 사용하였다. 긴 목 부분의 아래쪽 넓은 몸통 부분에 병에서 기름을 따를 수 있도록 한 작은 주둥이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등가구는 근대기에 많이 제작된 옹기류의 등기구와 혼동하기 쉽지만, 만주(滿洲)의 중국 한대(漢代) 출토품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자칫 식초를 담아두는 촛병으로 분류하기도 쉽다. 이러한 오류는 국내 몇몇 박물관에서도 확인되는 바가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1] 목제등경겸용촛대[木製 燈架兼用燭臺]// 조선후기// 밑지름 24cm, 높이 72cm// 제주민속박물관

[사진2] 도제유병겸용등가[陶製油瓶兼用燈架]// 조선중기// 밑지름 17cm, 윗지름 8.4cm, 높이 35.5cm// 국립민속박물관